

發 刊 辭

1995년은 法學分野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894년의 甲午更張을 기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 땅에 近代法學이 도입된지 만 100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, 1945년 日帝 치하로부터 독립한 시점에서 환산할 때에는 現代的 意味에서 法學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지 만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. “法學”이란 학문이 國家現象과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, 獨立國家로서 大韓民國이 탄생한지 5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過去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바탕으로 현재 韓國法學의 座標를 재점검하고, 이에 바탕하여 未來의 韓國法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通時的 作業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「法學」 제36권 2호의 發刊은 사뭇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 이번에 발간되는 「法學」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에 서울大學校 호암교수회관에서 本 研究所가 개최한 「韓國法學 50年の 成果와 21世紀적 課題」라는 주제의 學術大會 原稿를 정리해서 수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學術大會는 法學 각 분야를 民法, 憲法, 勞動法, 行政法, 刑法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바, 법학 각 분야에 있어 지난 50년의 研究成果를 돌이켜 겸허하게 反省하고 이를 통하여 21세기에 있어서 大韓民國 法學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 활발한 意見開陣의 場이었습니다. 아울러 共時的으로는 法學 내부의 각 分科에 있어서 學問的 相互理解와 協力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. 위의 學術大會 내용을 정리·발간하는 이번 「法學」은 法學專攻者뿐만 아니라 한국법학에 關心을 가진 모든 분들께 유익한 資料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

또한 이번호에 게재된 本 研究所 常任研究員 제위의 論文들은 商法, 法思想史, 英美法, 知的財産權法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盛夏之節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玉稿를 보내주신 교수님들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, 아울러 이번호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한 陰善澤·申宇澈 조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1995년 8월 10일

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
權 寧 星